

##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손끝세션교회’를 중심으로-\*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Self-help Group for the Deaf-Blind: Focusing on the Case of 'Sonkkeutse' Missionary Society

고경희 (Kounghee Koh)\*\*

백은령 (Eun Ryoung Paik)(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a self-help group for deaf-blind people managed by 'Sonkkeutse' Missionary Society. The study covers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elf-help group', and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its attendees'. Thus, various data such as observation data, document data, and audiovisual data were collected and those were qualitatively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elf-help group' consisted of 7 different phases including 'beginning of the Sonkkeutse Deaf-Blind Ministry', 'making the foundation', 'incompatibility', 'independence', 'new beginning', 'going hand in hand', and 'still incomplete'. Concerning 'Participations experiences of its attendees', 7 categories such as 'meeting', 'growth pain', 'worship felt at the Sonkkeutse Deaf-Blind Ministry', 'becoming a second family', 'tactile time together', 'experiencing overseas culture', and 'serving others over me' and 14 subcategories were drawn. 53 concept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 the paper discussed the operation of self-help groups for the Deaf-Blind.

**Key words :** Deaf-Blind, self-help group, qualitative case study

\* 2020년 12월 3일 접수, 12월 18일 최종수정, 12월 22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kiewie@hanmail.net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erpaik@chongshin.ac.kr

## 1. 서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물론 자신이 원해서 스스로 사회로부터 떨어져 은둔생활을 하거나 산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원한다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 의사소통은 타인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고립되게 된다.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은 수어를 모르는 청인<sup>1)</sup>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청인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농사회(Deaf community)를 이루고 농문화(Deaf culture)를 형성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농사회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존재한다. 듣지 못하는 농인인 상태에서 보이지도 않게 됨으로써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농기반 농맹인<sup>2)</sup>이 그들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농맹인 추정 인구는 10,815명이며, 이중 농인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된 농기반 농맹인의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서해정 외, 2018: 102).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에 거주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기반 농맹인은 200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농기반 농맹인 전수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시청각장애로 인해 고립된 농기반 농맹인을 찾아내기 위한 거의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한국농아인협회, 2020.6.30. 기준 조사자료).

농기반 농맹인은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시각장애를 추가적으로 갖게 됨으로써 수어도 보지 못하게 된다.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볼 수도 없게 된 농기반 농맹인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심리적인 문제는 외로움이다. 시각과 청각이 모두 닫혀버린 세상에서 누군가 손 내밀어 주기 전에는 철저히 혼자가 된다(고경희·백은령, 2019: 40-49).

2007년도 ‘한국시청각장애인자립지원회’ 발족을 계기로 농맹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전에 비해서는 확대되고 정보공유를 위한 당사자 중심의 자조집단이 결성되었지만 수어를 사용하는 농기반 농맹인과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맹기반 농맹인 사이에서 의사소통 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2016년 농기반 농맹인을 중심으로 ‘손끝으로여는세상(이하, 손끝세)’ 자조집단이 결성되면서 농기반 농맹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었고 이듬해인 2017년에 ‘시청각장애인 권익 옹호단체 손잡다

1) 청인: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농기반 농맹인: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농맹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이라고 칭하는데 농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은 ‘농맹인’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며,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은 ‘시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농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은 ‘농기반 농맹인’,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은 ‘맹기반 농맹인’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단, 고유명사나 단체이름에 ‘시청각장애인’이 나오면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하, 손잡다)'가 설립되면서 손끝세와 손잡다에 의해 농맹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결실 중 하나로 농맹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 10월31일에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이 통과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청각장애인'<sup>3)</sup>이 법 조항에 명시되었으며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재활, 의사소통, 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sup>4)</sup>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2항). 위 조항에 명시된 자조모임은 농기반 농맹인과의 소통을 통해 상호 지지할 수 있는 대상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보행 및 이동훈련, 심리상담, 직업,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자조집단은 공통의 목표를 위해 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어 사회적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적 역량도 강화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김성천 외, 2020: 82).

농맹인 자조집단의 경우도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던 농맹인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교체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신의 역량강화에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농맹인을 참여하도록 하면서 농맹인 사회의 지지체계가 점차 확대되게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맹인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농맹인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적 연구로는 농맹인의 교육과 재활 동향 분석(박순희, 2007),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분석(박중휘·정지훈, 2008), 국제 학술지 분석을 통한 맹농인 관련 연구 동향 분석(주혜선 외, 2015),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서해정외, 2017), 일본 시청각장애인 현황과 지원 실태 분석(박경란, 2020) 등이 있고 질적 연구로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적 삶 지원 기반에 대한 연구(조원석·김경미, 2018), 농인의 맹 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고경희·백은령, 2019)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농맹인에 대한 연구는 기초연구 단계라고 할 수 있어 농맹인 중에서도 농기반 농맹이라는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기반 농맹인이 당사자로서 적극 참여하며 자조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손끝세션교회'에 주목하여 형성과 발달과정, 그 모임의 의미와 가치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함의를 찾고 농기반 농맹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3) 이 법에 의하면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었다(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5항).

4) 법적 용어로는 '자조모임'으로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self help group'이라는 영어식 표현을 직역하여 '자조집단'으로 사용하므로 문맥에 따라 '자조모임'과 '자조집단'을 병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인 손끝세는 어떻게 형성, 발전되어 왔는가?

둘째, 손끝세 구성원과 관련자들의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

## II. 문헌고찰

### 1. 농기반 농맹인의 고립감

농맹인은 청각장애에 더하여 시각장애까지 갖게 되면서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장벽과 사회의 부적절한 지원으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Marion Hersh, 2013: 446),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한다(후쿠시마 사토시, 2007: 13).

농맹인은 실명 후 고립되어 가면서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농맹인을 찾고 싶어 한다(최숙희·최인옥, 2019: 28). 그러한 농맹인에게 세상에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 농맹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후쿠시마 사토시, 2007: 13).

농인인 상태에서 시각장애까지 갖게 된 농기반 농맹인의 가장 큰 어려움 또한 고립감으로 세상에 자신과 같은 사람은 없고 망망대해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며 누군가 옆에 왔음을 알려주지 않으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경희·백은령, 2019: 40).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간 방에서 한참을 이야기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자 그제야 방에 있는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나가 버린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조성재 역, 2017: 300).

농기반 농맹인은 보행, 의사소통, 정보습득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농맹인이 되기 전 손바닥 글씨로, 몸짓으로라도 소통하던 가족과도 시각장애를 갖게 된 이후에는 그마저도 어렵게 되고 수어로 소통하던 농인 친구들과의 대화도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고경희·백은령, 2019: 40-41). 농기반 농맹인이 수어사용자와 대화를 하려면 상대의 손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수어 모양을 하나하나 만져가며 이해하는 촉수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일반 수어를 사용할 때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어를 사용하던 친구들과도 자연스레 소통이 줄며 관계도 소원해지게 된다. 특

히 여럿이 대화를 주고받는 모임에서는 대화를 누군가가 전달해서 축수어로 통역을 해주어야 만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담당해줄 지인이나 통역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농기반 농맹인이 겪는 보행의 어려움도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이 있다. 농기반 농맹인은 시각과 청각장애 때문만이 아니라 음성언어로 길을 물어볼 수도 없으므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유로운 외출도 어렵게 된다.

정보습득에 있어서도 농기반 농맹인은 상당한 제약이 있다. 농기반 농맹인은 수어를 손으로 만져 소통하기 때문에 정보를 얻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 만나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점자로 정보를 얻고자 하면 점자를 배워야하는데 촉각으로 점자를 읽는 기술을 습득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보습득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농기반 농맹인은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수어가 의사소통 수단인 농기반 농맹인의 가장 큰 어려움이 수어로 소통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것이며(최숙희·최인옥 역, 2019: 28),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모임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조성재 역, 2017: 267), 농기반 농맹인을 위한 자조집단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안한 공간이 된다.

## 2. 농기반 농맹인과 자조집단

자조집단은 개개인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함께 모여 상호지원하며 개인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집단이었다(정영선, 1979: 11). 또한 서로에게 성공적인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지지해줌으로써 당면한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며, 이타심을 갖게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강현숙 외, 2004: 1351). 또한 자조집단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상황과 삶을 공유하면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터득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준다.

시청각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서해정·임수경, 2018: 122) 농맹인이 향후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41.7%가 자조집단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농맹인 자조집단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명 이상의 통역 및 안내 봉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참여가 쉽지 않다.

농맹인을 위한 자조집단의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NCADB(North California Association of the Deaf-Blind)와 SCADB(South California Association of the Deaf-Blind)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북부, 남부로 나뉘어 자조집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특히 NCADB의 경우 공식적인 기관이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당사자가 리더가 되어 53년간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세 달에 한 번씩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한 모임이 지속되고 있다<sup>5</sup>.

일본의 경우 ‘도쿄시맹농인친우회’와 ‘오사카맹농인친우회’가 농맹인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지역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하여 ‘전국맹농인단체연락협회의’가 2006년 8월에 발족되기도 했다(후쿠시마 사토시, 2007: 15).

한국의 경우, 2006년 8월 ‘설리번의 손 헬렌켈러의 꿈 (이하, 손꿈)’이 시작되면서 농맹인 회원 모집을 시작하였다. 2007년 개최된 ‘시청각중복장애인 교육과 재활 국제세미나’를 기점으로 농맹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어 ‘한국시청각장애인자립지원회’가 발족되었는데 그 과정 중에 손꿈 카페 운영진 내 갈등으로 기존 카페를 폐쇄하고 2007년 3월 현재의 손꿈 카페로 온라인 주소와 자료를 이전했다. 손꿈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온라인 카페 운영과 함께 한 달에 한번 오프라인 정모를 진행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오프라인 모임을 연 1~2회밖에는 진행할 수가 없어서 자조집단으로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sup>6</sup>.

2016년 6월에 손꿈 주최로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던 ‘시청각 중복장애인 제주체험나들이’를 계기로 손꿈에서 농기반 농맹인 만 독립하여 자조집단 ‘손끝세’가 설립되었다. 손끝세에 참여하는 농기반 농맹인은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혼자가 아닌 동지가 생겼으며 자조집단에서 정보를 얻고, 사는 이야기, 고민 등을 나누며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

한편 2017년 4월에는 20~30대 10명이 ‘손잡다’를 결성하고, 일본 전국맹농인협회의 전신인 ‘후쿠시마 사토시와 함께 걷는 회’가 맹농인 협회로 발전한 과정을 모델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농맹인 복지 마련 및 권리 옹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서해정 외, 2017: 30).

이처럼 국내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의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농맹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동료상담, 정보공유, 서로 간의 격려, 지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농기반 농맹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체 및 기관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는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 손끝세 사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형성과 발전 과정, 그 과정에서의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

5) 에이블뉴스, 2016, "미국시청각중복장애인협회 'NCADB'", <https://www.ablenews.co.kr>

6) 설리번의 손 헬렌켈러의 꿈, 2007, "우리 카페는요", <http://cafe.daum.net/kdbu>.

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사례나 경계를 가진 여러 사례들을 탐색하며, 다양한 정보원 즉, 면접, 관찰, 시청각자료, 문서와 보고서등을 포함한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에 대한 기술 또는 주제를 보고하는 방법으로, 독특한 사례나, 관심의 대상이 된 사례, 상세히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을 설명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조홍식 외 역, 2017: 126-127).

## 2. 연구사례선정

손끝세는 농기반 농맹인 중심으로 농맹인 선교, 자조, 사회 참여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이다. 2011년 장애인 선교단체 미문선교회의 송호일 목사가 맹기반 농맹인 두 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농맹인 예배의 첫 출발이며, 현재 손끝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예배모임이 발전하여 훗날 '손꿈'이라는 자조모임이 되었고 농학교 퇴직 교사인 최인옥 선생이 손꿈에 합류하면서 맹기반 농맹인이 주류였던 손꿈에 농기반 농맹인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은 농맹인이라는 공통점은 있었으나 의사소통의 수단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소통과 교류가 그리 원활하지는 않았다.

실례로 2016년 손꿈 주최로 한 '시청각 중복장애인 제주체험나들이'때 맹기반 농맹인과 농기반 농맹인이 함께한 2박3일 동안, 의사소통방법과 문화의 차이로 소통이 어긋나고 갈등과 어색함이 생겨났고, 농기반 농맹인들은 축수어 통역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 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회의에서 농기반 농맹인들은 자신들만의 모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계기로 농기반 농맹인 모임이 출발하게 되었다. 서로의 단합을 위해 참여한 '시청각 중복장애인 제주체험나들이'가 손꿈에서 농기반 농맹인이 분리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손끝세의 출발되었다.

2016년 10월25일 5명의 농맹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서울 소재 영락농인교회에서 첫 모임을 가졌고, 2020년 현재까지 손끝세 모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농맹인 회원 17명, 자원봉사자 32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과 4년여의 시간 동안 손끝세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농맹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와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농맹인의 고립감 해소와 상호 지지에 기여하는 자조집단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으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모임이라고 판단되어 사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손끝세가 시작되었던 2016년 제주도 여행에서부터 현재까지 손끝세 회원으로 참여하여 모임의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사례연구를 위해 회원, 자원봉사자, 운영위원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청취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농기반 농맹인의 자조집단의 형성과 발전과정, 구성원과 관련자들의 참여 경험을 도출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하나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례 탐구를 위해 철저하고 상세한 이해를 제시하는데(조흥식 외 역, 2017: 126),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참여관찰, 문서 및 시청각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은 일대일의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회원 참여자들의 이동 불편을 고려하여 집으로 방문하거나 참여 모임 장소에 찾아가 1시간 30분 내외로 진행하였다. 면접 내용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일대일 축수어로 진행하였다. 각 면접은 참여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한 시간 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가졌으며, 개방형의 비구조화 된 질문으로 진행하였고, 연구 취지를 사전에 설명하여 심층면접 진행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였다.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은 손끝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운영위원들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한 손끝세 농기반 농맹인 회원과 자원봉사자, 운영위원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1~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자원봉사자 FGI는 토의 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영락농인교회 휴게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운영위원회 FGI는 1박2일 운영위원 수련회 때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4시간동안 진행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2016년 10월 손끝세가 설립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손끝세 모임과 농맹인부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 회원이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농맹인 회원의 해외일정에 손세우미<sup>7)</sup>로 전 일정을 함께 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또한 손끝세 내에 자조적으로 생겨나는 소모임과 스터디에도 참여하여 회원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문서자료는 손끝세 운영위원회와 담당 간사의 동의를 얻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자료 전 반을 검토하였고, 기관의 페이스북과, 온라인 카페에 보관된 자료들을 검색해서 수집하였다.

### 4. 연구(심층면접)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손끝세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농기반 농맹인 회원 3명, 자원봉사자 4명, 운영위원 4명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의

7) 손세우미: 손끝세 내에서 자원봉사자를 부르는 말



사를 확인 한 후 총 11명을 선정하였다. 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4명을 계획하였으나 한 명이 포기하여 최종적으로는 세 명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면접형태		연령	성별	자조집단참여기간
일대일 심층면접	농기반 농맹인 1	50대	남	4년
	농기반 농맹인 2	50대	여	3년
	농기반 농맹인 3	30대	여	4년
면접형태		연령	성별	자조집단참여기간
FGI 1	운영위원 1	70대	여	4년
	운영위원 2	50대	남	4년
	운영위원 3	50대	여	4년
	운영위원 4	40대	여	4년
FGI 2	손세우미 1	50대	여	4년
	손세우미 2	60대	여	4년
	손세우미 3	50대	여	4년
	손세우미 4	40대	여	4년

연구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면접 영상 전사를 마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면접내용 그대로 전사되었는지 확인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다르게 전사된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짧은 만남이나 문자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 시 수정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한 날짜를 포함한 파일명으로 저장하였으며, 자조집단의 설립 준비과정 및 설립 이후 지금까지의 기록과 문서자료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질적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동연구자에게 확인받아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연구 시작 전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와 녹화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중단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특별히 농기반 농맹인 연구 참여자를 위해서는 점자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프린트 하여 제시하고 연구자가 촉수어로 설명하였다. 연

구 참여자 중 손끝세 설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송호일 목사와 최인옥 선생에게는 실명사용에 대한 의사 확인과 동의과정을 거쳤다.

면접이 끝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메일로 보내어 검토 받았다.

## IV. 연구 결과

### 1. 형성 및 발전 과정

#### (1) 손끝세의 태동 : 농맹인 예배의 시작

손끝세 농기반 농맹인 예배의 전신인 미문장애인선교회는 농맹인 이외의 장애인과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농맹인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맹기반 농맹인 이었던 두 명의 농맹인은 송 목사에게 별도의 예배를 요청하였고 송 목사가 이들의 거처로 찾아가 각자의 귀에 큰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농맹인 예배가 시작되었다.

송 목사의 사역지 변경으로 농맹인 예배는 중단되었으나, 두 농맹인 중 한 사람인 J씨가 2007년에 농맹인 자조모임 ‘손꿈’을 조직하였고,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손꿈 오프라인 모임에서 농맹인 예배를 유지해나갔다.

손꿈에 농기반 농맹인이 참여하게 된 계기는 최 선생과 J씨, 송 목사의 만남에서였다. 2006년 가을, 춘천계성학교(농학교) 교사이며 저시력 농맹인이었던 최 선생은 퇴직 후를 고민하며 농맹인 봉사의 길을 찾고 있었다. 최 선생은 농맹인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신문 기사를 통해 손꿈 J씨를 알게 되었고, 춘천과 천안을 오가며 손꿈 모임에 합류하였다.

2008년, 퇴직한 최 선생과 천안에서 학교를 다니던 J씨 부부가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농맹인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 공동체의 목적은 방치되어 있는 농맹인을 찾아내고, 이들이 재활하여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연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2011년 재합류 하게 된 송 목사가 손꿈의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고, 손꿈이 개설한 온라인 카페를 보고 가족과 함께 찾아온 농기반 농맹인들이 합류하면서 농기반 농맹인도 손꿈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농맹인 당사자와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인 부모와 농맹인의 재활과 교육에 대하여 상담하기도 하였다.

## (2) 기초다지기: 흠어져 있던 농기반 농맹인 찾기

고립되어 살던 농기반 농맹인이 손꿈에 합류하게 되면서 손꿈은 농기반과 맹기반이 함께 하는 자조 모임이 되었다. 농기반 농맹인 A씨의 여동생이 A씨와 함께 손꿈으로 찾아왔는데, 당시에 A씨는 터널 시야가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수어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촉각으로 수어를 읽는 방법을 몰라서 관계 자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최 선생은 A씨에게 발견 되지 않은 다른 농맹인들을 함께 찾아보자고 하고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갔다. 그 후 A씨의 시야는 점점 더 좁아져 현재는 전맹 상태가 되었다.

두 번째로 손꿈에 연락을 해 온 사람은 농기반 농맹인 D씨의 딸이었는데, 엄마와 이혼 후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손꿈에 연락을 해왔던 것이다. D씨는 전농 전맹인으로 생활한 지 10여 년이 지났고, 수어도, 친구도 잃고 고립되어 살고 있었다. D씨의 80세 아버지는 수어를 전혀 몰랐고, D씨의 곁에는 촉각으로 수어를 해줄 사람이 전혀 없어서 오랜 세월 동안 D씨는 소통다운 소통을 하지 못하며 지냈다. D씨와 아버지의 소통방법은 몇 마디의 손바닥 필담과 몸짓이 전부였다.

최 선생과 J씨를 만난 아버지는 농맹인 아들과 함께 사는 애로점을 끝도 없이 토로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니 자기 입에 안 맞는 음식을 차리면 밥상을 엮어버리고, 밤과 낮을 착각하여 한 밤중에 뭔가를 만든다고 망치로 나무판을 두들겨 이웃들의 항의를 받는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최 선생은 그 아버지에게 손꿈 대표인 J씨 또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맹인이라고 말해주었고, D씨의 아버지는 D씨의 눈에 커다란 가위표, 귀에 커다란 가위표를 그리며 '너와 똑같은 사람이 왔다'고 알려주었다. D씨는 어리둥절해하며 안 보이는 눈만 끄벅거리면서 손을 휘젓고 있었다. 혹시나 하고 수어로 소통을 시도해 보았으나 오랫동안 수어를 사용하지 않던 때라서 서로 잡은 손이 어긋나고 소통이 어려웠다.

J씨와 D씨가 같은 농맹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여러 번 눈과 귀를 막는 표현을 한 후에 '같다'는 수어를 반복하자 D씨는 그제야 그 뜻을 이해하고 J씨의 손을 덥석 움켜쥐고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최 선생은 그 후 여러 번 D씨의 집을 오가며 시내에 있는 농인교회로 인도하여 촉수어로 예배를 드리게 도왔고, D씨에게 필요한 시각장애 진단, 활동 지원사 연결, 기초수급 연결, 장애인 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한 안내를 해 주었다.

농기반 농맹인 B씨는 최 선생이 선교사 친구에게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농인 교회로 찾아가 만나게 되었다. B씨는 바둑 천재로 이름을 날렸으나 터널시야가 진행되면서부터 바둑을 둘 수 없게 되고 전맹이 되자 다니던 교회를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다.

B씨가 천안 손꿈 모임에 초대받았을 무렵 B씨는 시야가 거의 닫히던 시점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최 선생은 B씨에게 촉각수어나 점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채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전하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았고 전농 전맹인이 된 후 손꿈과 연락이 끊어졌고, 다니던 교회도 그

만두었다는 소식을 듣다가 손꿈에서 주최한 제주도여행에서 최 선생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농기반 농맹인 F씨는 어머니가 손꿈을 통해서 연락이 되어 대전 모임에 참석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최 선생은 아들에 대해 걱정이 많은 엄마에게 앞으로 아들과 같은 농맹인을 많이 만날 테니 연락을 끊지 말고 지내자고 당부해두었다. 그 후 손꿈과 연락이 끊겼다가 제주도 행사 때 F씨를 다시 만나게 된 후 손끝세가 시작된 2016년까지 꾸준한 관계를 이어갔다.

보는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던 농인이 실명하여 농맹인이 되는 순간, 눈앞에서 수어가 사라진다. 당시에는 농기반 농맹인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어를 만져서 촉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농맹인 당사자나 가족 친구들도 몰랐다. 눈으로 보는 수어를 사용하다가 시력을 상실하면 농인은 친구, 교회, 사회로부터 자취도 없이 사라지거나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투명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 3) 어우러지지 못함: 다른 문화, 다른 언어로 인해 모임에 적응하지 못함

농기반 농맹인과 맹기반 농맹인의 의사소통 방식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문화 또한 차이가 크다. 농기반 농맹인은 농문화에 익숙하고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며, 수신은 촉수어로 하고 발신은 일반 수어로 한다. 맹기반 농맹인은 시각장애인 문화에 익숙하며, 청력이 남아있다면 귀에 대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음성으로 소통할 수 있다. 청력 손실이 크다면 점화, 점자, 촉수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자신의 음성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경희·백은령, 2019). 또한 청력과 시력의 손실 정도가 적은 경우 농기반, 맹기반에 속하지 않고 정안인,<sup>8</sup> 청인 문화에 가까우며 손바닥필담, 근접수어<sup>9</sup>, 점자 등으로 소통하기도 한다.

농기반 농맹인의 경우 제1언어가 수어이기 때문에 청인이 사용하는 음성언어와 한글 문자는 농인들에게도 농기반 농맹인에게도 제2외국어나 다름없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글자가 빼곡히 씌어있는 문서를 점자로 읽는 것보다 촉수어로 설명하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농기반 농맹인이 누군가와 소통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화자가 수어사용자라면 촉수어로 소통이 가능하나 수어사용자가 아니라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손꿈은 농기반 농맹인을 통역할 수 있는 봉사자를 찾기가 어려워 통역 지원이 여의치 않았다. 촉수어로 소통해야 하는 농기반 농맹인 회원들은 손꿈 모임에 나와도 다른 농맹인 회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농기반 농맹인은 세상에 농맹인이 자기 혼자인 줄 알고 살다가 동지를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뿐 소통의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됨으로써 점차 손꿈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다.

8) 정안인: 정상시력을 가진 사람.

9) 근접수어: 저시력 또는 약시 농맹인을 위해 농맹인이 보이는 거리만큼 위치를 옮겨 수어하는 것.

#### (4) 독립하기: 농기반 농맹인만의 모임으로 독립

1년에 한두 번 모이던 모임조차 어렵게 되다가 다시 모이게 된 계기가 제주도 여행이었다. 손꿈에서는 2016년 6월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에서 있었던 '시청각 중복장애인 제주체험나들이'에 농기반 농맹인 5명의 통역을 위해 5명의 자원봉사 수어통역사들을 섭외하였으며 연구자도 5명의 통역사 중 한 명으로 참여하였다.

2박3일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날, 몇 년간 모이지 못했던 자조모임 회복을 위해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서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그 모임에서도 농기반 농맹인의 농문화는 고려되지 않고 맹기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농기반 농맹인들은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였다. 그동안 손꿈 모임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참고 지냈었는데, 수어통역사들이 농기반 농맹인 회원들의 수어를 음성으로 통역해 주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들을 꺼내놓았고 이제는 농기반 농맹인들이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지고 모이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주 여행을 다녀온 후 수어를 사용하는 농기반 농맹인 중심의 모임이 하고 싶다는 농기반 농맹인의 요청을 기억한 수어통역사 두 명이 송 목사에게 농기반 농맹인만을 위한 모임에 예배사역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여 농기반 농맹인을 위한 모임이 시작되었다. 송 목사는 '농맹인은 날짜를 자주 바꾸면 힘들어 한다'는 조언을 해 주었고 그 조언을 바탕으로 농기반 농맹인 모임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로 고정하기로 했다.

2016년 10월에 시작된 농기반 농맹인 모임은 농맹인 5명으로 첫 모임을 시작하여 4년간 교회 행사가 많은 7월, 12월 방학을 제외하고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0시30분 영락농인교회'라는 모임 날짜를 지켜 꾸준한 모임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농맹인 회원 17명과 자원봉사자 32명이 함께 하고 있다.

#### (5) 새로운 시작: 농기반 농맹인 모임의 시작

##### ① 새 출발

2016년 10월25일 손끝세 첫 모임이 시작되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송호일, 최인옥 외 3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2016년 11월20일 페이스북을 개설을 계기로 이를 통해 모임을 알게 된 지인들이 농맹인의 존재를 알려오면서 모임이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자조 모임을 가진 지 7개월 만에 모임의 공식 이름도 갖게 되었다. 2017년 4월 첫 소풍을 가게 되었고 그때 '촉수어로 소통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손끝으로 보이지 않았던 세상을 열어준다는 의미의 '손끝으로여는세상(약칭: 손끝세)'으로 명명하였다.

2018년에는 함께하는 자원봉사들을 부르는 이름을 '손세우미'로 짓게 되었는데 손세우미는 '손을

세워주는 친구'라는 의미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주님처럼 대화가 멈춰진 삶에 찾아 온 '친구가 세워 준 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손끝으로 여는 세상에서는 농맹인과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손세우미가 함께하고 있다.

## ② 같은 문화, 같은 언어로 예배함

손끝세를 시작하면서 운영위원회가 가장 중점으로 생각한 것이 예배이며 농맹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로마서 10장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구절이 있는데 농기반 농맹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어나 농인이 실명까지 하면서 수어를 볼 수도 입 모양을 읽을 수도 없었으므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다.

농기반 농맹인이 점자를 익히고 점자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는 피나는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누군가 안내해 주지 않으면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교회를 가도 저시력 농맹인에겐 근접수어로, 전농전맹 농맹인에게는 촉수어로 통역이 필요했다. 그런 이유로 손끝세의 예배는 농맹인이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농맹인의 시력 상실 정도와 수어능력에 따라 다양한 통역을 제공한다. 저시력 농맹인을 위해서는 근접수어통역이 배치되거나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는 경우 모니터 가까이 앉게 하고, 전농 전맹인의 경우 1대1로 촉수어 통역을 지원한다.

예배 순서 중 특송과 기도는 대부분 농맹인 회원이 담당하는데 손끝세 예배를 위해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한 수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농맹인이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농맹인을 사랑하시는지를 느낀 손끝세의 농맹인들은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의 간증과 기쁨의 찬양이 있다.

농맹인 연구 참여자들은 손끝세에 오기 전 홀로 고립되어 지냈을 때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손끝세에 함께 하면서부터 믿음이 회복되었고 아직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농맹인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비전으로 갖게 되었다.

손끝세 예배로 인해 믿음을 회복한 것은 농맹인 뿐만 아니라 손세우미도 마찬가지이다. 매주 습관처럼 다니던 청인 교회에서의 예배는 어느덧 일상이 되었으나 농맹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태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농맹인의 예배는 촉각으로 만져야만 소통이 되므로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손세우미 자신은 그런 제약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데도 감사 없이 참여했던 것을 부끄러워했다.

손끝세에서 촉수어와 근접수어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체험한 농맹인들은 주일 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랐다. 영락농인교회는 이들을 위해 자리를 배치하고, 모니터를 새로 구입하는 등 농맹인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교회 신도들 중 촉수어 봉사자를 키워 통역할 수 있도록 농맹인 부서를 새롭게 조직하였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간절히 찾으신 예수께서 무리로 돌아온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은 농맹인을 손끝세 예배를 통해 따뜻하게 위로해주시고 만나주고 계신다.

손끝세에 참여하는 농기반 농맹인과 손세우미는 같은 언어로 소통하며, 같은 문화로 공감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복음을 사회로 나오지 못한 농맹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

### ③ 농기반 농맹인과 함께 축각으로 느끼는 만남

손끝세의 공식적인 모임 시간은 10시30분이며 11시에 예배가 시작된다. 예배하기 전에 손끝세에서 꼭 가지는 시간은 '인사하기'이다. 정안인은 모임 장소에 오면 누가 왔는지 보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인사할 수 있지만 농맹인은 손잡게 해주지 않으면 2박3일을 함께해도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2016년 제주도에서 2박3일을 함께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농맹인 K씨가 연구자에게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2박3일 기간 동안 아무도 자신을 농맹인 F씨에게 데려다 주지 않아서 한 마디도 대화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급히 자리를 바꿔 K씨와 F씨를 옆에 앉게 했고, 2박3일간 여행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누었어야 했다.

손끝세는 이런 이유로 10시30분이 되면 동그랗게 둘러서서 처음 인사하는 사람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꼬리 물기처럼 인사 마친 사람은 옆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방법으로 인사하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모두와 인사 나눌 수 있으며, 누가 참석하였는지 알게 된 농맹인은 하루 동안 모임 장소에 있으면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에게 안내해 줄 것을 손세우미에게 부탁하면 된다.

손끝세는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모여면서 1부 예배, 2부 친교시간을 통해서 농맹인 회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부 예배에는 농맹인의 시력 상실 정도와 수어 능력에 따라 손세우미를 배치하여 맞춤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손끝세 모임 공지 때부터 참여할 농맹인과 손세우미를 매칭하여 저시력 농맹인에게는 근접수어 통역을, 전농전맹 농맹인에게는 촉수어 통역을 지원한다.

손끝세의 2부 순서인 친교시간은 농맹인 회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행하며, 별다른 의견이 없을 시에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다. 2부 순서는 시각장애인용 윗놀이, 농맹인 보행방법 훈련, 외국 농맹인 전문가를 초대하여 진행하는 글로벌 토크쇼, 햅틱시그널<sup>10</sup> 배우기, 국제수화 배우기, 시각장애인용 카드놀이, 레크리에이션, 성탄절 선물교환, 요리 등 다양하게 구성한다.

손끝세는 4월과 10월엔 당일치기 또는 1박2일로 사회체험활동을 진행하여 어린이대공원, 전주, 부산, 천안아산, 목포 등을 여행하였는데, 여행 때마다 놀이기구타기, 바다 체험, 수영, 짚라인 타기 등 농맹인이 되면서 도전해 보지 못했던 체험을 하게 하여 농맹인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10) 햅틱시그널(Haptic signal):백사인(Back sign)이라고도 하는데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맹인이 주변 환경과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등이나 팔에 신호를 주는 것을 말한다.

#### ④ 시행착오를 겪음

손끝세 모임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농맹인 회원이 정식으로 촉수어통역 지원을 받은 것이 제주도 여행이 처음이었고, 손세우미도 농맹인을 만나 촉수어를 해본 것이 난생 처음이어서 서로 모든 것이 서툴렀다. 농맹인을 안내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농맹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이 만난 모임이기에 농맹인도 손세우미도 시간을 가지며 기다려야 했다.

손끝세는 농맹인 회원과 손세우미가 여러 사람과 교체할 수 있도록 오전과 오후에 손세우미를 교체한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끔 농맹인 회원이 혼자되는 경우도 있다. 기존에 담당하던 손세우미와 교대하게 될 손세우미의 사인이 안 맞아 먼저 담당하던 손세우미는 새로 지정된 농맹인 회원에게 가고, 교대해야 할 손세우미가 오지 않은 농맹인 회원은 하염없이 그 손세우미가 오길 기다려야 했다. 이와 같은 실수는 실내에서 이루어졌던 모임에서 뿐 아니라 외부로 여행할 때도 발생하였다. 교대 시 착오가 생겨 농맹인 회원이 주차장에 홀로 남겨져 당시 여행에 참여했던 손끝세 회원 모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다. 홀로 남겨졌던 농맹인 회원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어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 이후로 손세우미 교체는 ‘맞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손세우미를 교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손세우미의 촉수어 통역 실력 때문이었다. 통역에 능한 손세우미를 만난 농맹인의 하루는 즐거운 반면 서툰 손세우미를 만난 농맹인은 상황과 내용을 그대로 전달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만족스럽지 않은 통역이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었다.

#### ⑤ 농맹 전문가에게 기초부터 다시 배운 후 농맹에 대해 눈을 뜨게 됨

미국에서 농맹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C씨가 마침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손끝세는 C씨를 모임에 초대했다. C씨는 농맹인인 남편과 미국에서 살면서 농맹인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2017년에 손끝세 회원들을 미국으로 초청한 사람이다. C씨는 농맹인을 안내하는 법, 촉수어로 소통하는 법, 근접수어로 소통하는 법, 농맹인을 위한 에티켓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그 교육을 통해 손끝세 회원들은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다.

손끝세가 SNS에 활동 모습들을 올리고 홍보한 덕분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농맹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손끝세를 찾아오기도 한다. 연구자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만난 일본 농맹인 G씨도 한국에 왔을 때 연구자에게 연락을 해왔고 손끝세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해서 손끝세에 초대하게 되었다. G씨는 일본의 농맹인 지원 상황과 농맹인으로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회원들에게 들려주었고, 손끝세의 농맹인 당사자 회원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덴마크에 입양되어 간 한국인 N씨는 덴마크에서 농맹인을 위한 수어통역사가 되었다. SNS를 통해 손끝세를 알게 되어 모임에 오게 되었고 손끝세와 함께 하면서 한국 수어도 배우고 덴마크의 농맹문화도 전해주었다.

N씨는 덴마크의 농맹인들이 사용하는 햅틱시그널에 대해 손끝세에 소개하였고, 손끝세는 이를 계기로 하여 한국형 햅틱시그널인 '축신호'개발을 위해 연구 모임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서툴렀던 손끝세에 해외의 전문가들은 단비 같은 존재였고, 손끝세는 그들을 통해 더 나은 통역과 지원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는 손끝세 회원들은 어느덧 제2의 가족이 되어 안 만나면 허전하고, 보고 싶은 사이가 되었다.

### ⑥ 농기반 농맹인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조 모임

손끝세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농기반 농맹인 당사자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조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손끝세에 먼저 참여한 농맹인 회원이 나중에 참여한 회원에게 농맹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동료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필요한 공부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자조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다. 손끝세는 공식적인 모임 이외에도 회원의 필요에 의해 삼삼오오 모임을 갖는데, 그 중 대표적인 모임이 수어스터디, 성경통독모임, 여행 모임이다.

2017년, 미국 라이트하우스에서 농맹인 전문가로 일하는 C씨의 지원을 받아 그해 8월, 농맹인 회원 4명과 손세우미 3명이 미국 나파에서 개최되는 농맹인 캠프에 참여하였다. 그것을 계기로 2018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농맹인대회, 2019년 호주에서 개최된 DBI(Deafblind International) 세계농맹인컨퍼런스에도 참석하여 견문을 넓혔고, 농맹인 당사자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다. 2017년 미국 방문 시 외국 농맹인과 대화할 때 농맹인 당사자가 직접 소통하려면 그 나라의 수어를 배워야 함을 깨달은 회원들은 2018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농맹인대회 때부터는 사전 스튜디오모임을 진행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일본 대회에 참석하기로 한 농맹인회원과 손세우미가 만나 일본 수어를 공부하였고 2019년 호주 컨퍼런스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3개월 동안 국제수화를 익혀 참석하였다.

성경통독 모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새해가 되면 기독교인들은 1년 동안 성경 1독을 목표로 하듯이 손끝세 회원도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싶은 회원들이 카톡방을 만들어 매일 자신이 읽을 분량을 완료하면 '완료'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은혜 받은 성경구절이나 말씀 묵상 등을 나누며 온라인 성경통독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의 농맹인 회원이 모여 따로 여행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서로의 집을 방문해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며 함께 교류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주어지는 모임을 기다

릴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스스로 기획하고 모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손끝세의 기초다지기가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손끝세의 큰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다.

#### (6) 손잡고 함께 가기: 외부 기관과의 콜라보레이션

손끝세에서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이어오면서 손끝세 뿐만 아니라 농맹인과 함께 하고 싶은 다른 단체에서도 손끝세를 찾아오게 되었다. 농맹인 회원은 손끝세에 찾아온 다른 기관의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 기관이 주최하는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세상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다.

손끝세가 플랫폼이 되어 각 단체와 연계하고 협력하며 손끝세에서 만나 정보를 교환하면서 농맹인 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는데 그 대표적인 기관이 헬렌켈러센터,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 제주 도농아복지관, 손잡다 이다.

#### ① 헬렌켈러센터: 농맹인 당사자 교육 및 후원

헬렌켈러센터는 2019년 4월 밀알복지재단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농맹인과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다. 헬렌켈러센터의 담당자는 손끝세의 손세우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농기반 농맹인 회원 A씨를 헬렌켈러위원회 농맹인 당사자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하였다. 호주 DBI 컨퍼런스 때도 손끝세 참가자들을 위해 적지 않은 후원금을 지원해 주었고, 최근 헬렌켈러센터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교수, 농맹인, 수어통역사, 농맹인 전문가 등 50여명이 함께하는 가운데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복지입법 프로보노 캠프’를 개최하였는데, 손끝세 회원도 그 캠프에 참여하여 농맹인 법안 마련에 농맹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돌아왔다. 2020년 21대 국회에 제출할 헬렌켈러법안 제정 지원을 위한 당사자 토론회가 9월, 10월에 걸쳐 5회차로 진행되었다. 헬렌켈러센터는 손끝세와 콜라보를 이루면서 농맹인이 필요한 곳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며 당사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②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 농맹인 전문 수어통역사와 당사자 강사 양성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손끝세와 함께 2018년 8월27일-28일 농맹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 과정 1기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농맹인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뿐 아니라 당사자 강사 양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손끝세에서는 2018년 일본 아시아농맹인대회를 위해 참가자인 농맹인들과 함께 할 통역사를 모집하였다. 일주일간 농맹인을 안내하고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농맹인 안내법, 소통법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임을 고려하여 손끝세의 운영진과 농맹인 리더의 도움을 받아 제1회 농맹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과정을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와 함께 진행하였고, 그 양성과정을 통해 수료한 수강생중 5명의 지원을 받아 일본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농맹인 당사자를 강사로 양성하여 서울, 제주, 부산, 대전 등에서 농맹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2020년부터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진행하는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에 농맹인 당사자를 강사로 보내고 있다.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서 양성된 농맹인 전문 수어통역사들은 기본 1박2일 과정에 참여한 인원만 46명이며, 3시간 기초교육에 참여한 수어통역사는 전국에 걸쳐 250명이 넘는다. 이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농맹인에게 곧바로 의사소통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농맹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린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손끝세의 농맹인 당사자 강사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자신이 쓰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손끝세와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서 진행했던 제1회 농맹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과정에 강사로 초대받은 순간 너무 떨렸어요. 헬렌켈러센터가 2017년 세워지고 내가 강의 했을 때도 너무 떨렸는데 사람들이 감동 받았다고 하고 좋았다고 하니깐 저도 좋았고 제주도에 강사로 초대 받았을 때는 느낌이 달랐어요(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농맹인 당사자 강사로서)어둠속에서 방황하는 농맹인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서 농맹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수어통역사들은 농맹인 당사자가 해당지역에서 통역이 필요할 때마다 통역을 지원 해주고 있다.

### ③ 손잡다: 농맹인 권익 옹호 활동

손끝세는 농기반 농맹인 모임이다 보니 농문화, 수어 등에는 강점이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된 농맹이 알아야 할 정보가 부족했는데 그 부분을 손잡다가 채워주었다.

손잡다는 매주 금요일 자조모임을 통해 농맹인 당사자들이 서로 지원하고 상담하면서 점자배우기, 보행, 사회체험활동을 통해 농맹인 당사자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손끝세의 회원들도 손잡다 자조 모임에 참여하면서 점자를 배우고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내 사용법을 배워 카톡, 페이스북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손잡다에 오는 맹기반 농맹인들에게 수어를 가르쳐 주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잡다에서 점자를 배우고 점자정보단말기 사용법을 배운 손끝세 회원들은 손잡다 에서 대여한 점자정보단말기로 카톡을 연결하여 손끝세 회원 카톡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처음 카톡으로 인사를 하게

된 날을 손끝세 회원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손잡다는 시청각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해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시청각장애인대회, 동료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농맹인 당사자와 함께 하고 있다.

#### ④ 함께 하는 작업, 함께 하는 공간

손끝세는 2020년 1월, 한국형 햅틱시그널인 ‘촉신호<sup>11)</sup>’ 개발을 위한 연구 모임을 구성하였다. 연구 모임에는 농맹인 당사자 4명과 손끝세선교회 운영위원, 3년 이상 농기반 농맹인의 수어통역사로 활동해 온 수어통역사 8명,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 헬렌켈러센터 담당, 제주도농아복지관 농맹인서비스 담당 2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손끝세는 농맹인과 관련된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콜라보레이션<sup>12)</sup>을 이루어간다. 최근에 송 목사가 만난 한 조각예술 전문가는 진흙으로 작품을 만들어 그 작품의 형상보다 그림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조각가로 유명하다. 조각예술 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 그림자의 형상이 어둠 속에서 더 의미 있는 농맹인의 삶과 같다고 고백한다. 그 조각예술 전문가는 ‘미술작가들을 위한 코로나 긴급지원’서울시 사업에 지원하여 손끝세의 모임공간인 영락농인교회에 농맹인들과 작품을 만들어 설치하는 기획을 제안하였고 3차 까지 통과되었다. 지원사업이 통과 되면 농맹인들이 이정표 작품을 만들어 교회 곳곳에 설치하여 손으로 만지며 길을 찾을 수 있게 작품을 만들 계획이다.

2020년 10월, 농맹인 캠핑장이 세워졌는데, 송 목사가 전 재산을 털고 빚을 내어 지은 한옥식 구조의 집 4채이다. 그 집을 지은 목적은 농맹인들의 모임 공간을 만들고,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농맹인 캠핑장은 ‘손을 쥌다’는 뜻에서 ‘손쥌’이란 이름으로 정했으며 농맹인 뿐만 아니라 농맹인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손끝세는 이제 혼자서 고립된 삶을 떨치고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쉼터를 가지게 된 것이다.

최근 농맹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전에 비해 높아지면서 손끝세 모임 이외에도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손끝세는 농맹인이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며 지원하지만 손끝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 (7)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

손끝세는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을 이루어 냈으나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드러나지 않은 농맹인을 찾는 것과 농맹인의

11) 촉신호: 한국형 햅틱시그널 연구모임에서 햅틱시그널을 한국어 명칭으로 지은 이름이다.

당사자성을 더욱 세워주는 일이다.

국내 농기반 농맹인이 200명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손끝세 회원은 17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절대 다수의 농기반 농맹인이 집밖으로 나오지 못한채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농기반 농맹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연구가 한국농아인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회원 등록이 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농기반 농맹인까지 포함한다면 정확한 인구 규모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2016년 손끝세에서 처음 만난 농맹인 회원의 모습과 현재 농맹인 리더로서, 당사자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의 모습은 천차만별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었던 버려진 돌맹이 같은 삶에서 벗어나 당당히 농맹인 당사자로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다. 손끝세는 아직도 집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농기반 농맹인을 찾아내는 '보물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숨어 있는 보석을 찾아 현재의 손끝세 회원처럼 자신의 삶을 나누고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려한다.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당사자성'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손끝세는 2018년 10월, 농맹인 당사자 부장단을 구성하였는데 손끝세에 꾸준히 참석했던 회원을 중심으로 진행부장, 친교부장, 회계부장, 국제교류부장, 교육부장, 예배부장이 그러하다. 이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하던 것을 부장단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당사자 중심' 구조로 변경하였다.

손끝세에서 농맹인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반드시 농맹인 리더인 부장단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며 손끝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사회를 본다거나 특송, 대표기도, 레크리에이션 진행 등도 농맹인 당사자가 맡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손세우미나 운영위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농맹인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농맹인 회원을 그곳으로 안내해주고 촉수어 통역으로 지원한다. 최근 우리나라가 농맹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국회에 '헬렌켈러법'이 발의 되는 등의 활동이 이어지면서 농맹인 사자의 목소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헬렌켈러법 법안에 농맹인 당사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전국 농맹인 실태조사 사전 작업인 농맹인의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에 농맹인 당사자가 초대되어 의견을 내기도 했다.

손끝세는 숨어 있는 보석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방안을 모색하고, 농맹인 당사자가 주인공이 되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다.

## 2. 연구 참여자의 참여 경험

연구 참여자의 참여 경험으로 아래 <Table 2>에 제시한대로 '만남', '성장통', '손끝으로 느끼는 예배', '제2의 가족', '촉각으로 함께 하는 시간', '해외 문화를 경험하며 더 성장하게 됨',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섬김' 등 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Table 2. Experience of Research Participants

범주	하위범주	개념
만남	동병상련, 고립에서 벗어나 동지를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에서 만났던 농맹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이 그리웠는데 농기반 농맹인모임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함</li> <li>-손끝세에서 다른 농맹인을 만나기 전에 농맹인은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음</li> <li>-농맹인이 된 후 자신감도 떨어지고 소극적으로 변했으며 우울증도 왔음</li> <li>-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농맹인을 만나니까 반갑고 좋았음</li> <li>-농맹인 친구들 만나고부터 농인친구들과의 만남이 좋고 농맹인친구와의 만남이 더 많이 늘었음.</li> </ul>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맹인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에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음</li> <li>-첫 만남에서 '저는 청각 시각 언어 중복장애자입니다' 라고 인조가족에 쓰인 것을 앞뒤에 메고 왔을 때 가슴이 아파 울었음</li> <li>-잘하는 모습 좋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음</li> <li>-그동안 농맹인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게 미안한 마음</li> </ul>
성장통	시행착오를 통해 더 배우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포로 여행 갔을 때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이 주차장에 혼자 남겨진 적이 있음</li> <li>-촉수어로 인사하는 방법을 몰라 근접수어통역으로 시작했음</li> <li>-농맹인과 촉수어로 소통하는게 어색했으나 교제하다보니 마음에 변화가 있었음</li> <li>-처음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촉수어도 잘하게 되었음</li> <li>-통역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 전달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름</li> </ul>
	갈등을 통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맹인 동료와 문자로 인해 오해가 생겼을 때 마음이 아팠음</li> <li>-손끝세는 마음공부 하는곳 이라는 생각이 듦</li> <li>-저시력인 나도 관심 받고 싶었는데 관심 가져주지 않아 실망하고 좀 외로웠음</li> <li>-갈등이 있어 독립하게 되었지만 맹기반 농맹인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은 마음</li> </ul>
손끝으로 느끼는 예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님이 농맹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따뜻한 느낌임</li> <li>-손끝세에 함께 하면서 믿음이 회복되었음</li> <li>-촉각으로 느껴야 하는 농맹인의 예배를 통해 내 신앙의 연약함을 회개하게 됨</li> <li>-농맹인들의 대표기도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느껴지는 감동이 있음</li> </ul>

제2의 가족	못만나도 외롭지 않은 신세계, SNS	-점자정보단말기를 연결해서 카톡을 설치 한 후부터 집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음 -점자정보단말기로 행사소식도 듣고 시간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재미있음
	사랑을 만나다	-손끝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 더 힘내서 손끝세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김
	외로움 대신 그리움, 또하나의 가족	-손끝세 모임이 있는 마지막 주를 기대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 -아기 키우느라 손끝세 모임에 가지 못해 속상함 -익숙하지만 특별하게 내 삶의 일부가 된 농맹인과 함께하는 시간 -처음에는 다 눈물 나지만 시간이 지나고 친구로 보임 -또하나의 가족, 손끝세
촉각으로 함께하는 시간		-손끝세와 여행하면서 불안과 속상함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어서 좋았음 -요리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하니 좋았음 -예배 마치고 윗놀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함. -손끝세 모임에서 농맹인 사회에 대한 궁금증도 서로 물어보고 정보를 나눔
해외문화를 경험하며 더 성장하게 됨	제 2 외국어를 배움	-외국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 국제수화를 열심히 배웠으나 배운 것을 까먹어서 아쉽고 당황했음 -국제수화 열심히 배워서 외국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음 -처음 외국에 갔을 때 서툴렀지만 일본을 방문 했을때 소통이 잘되었음. -외국 친구들과 통역사 없이 직접 대화할 수 있어 좋았고 손의 느낌이 신기했음 -일본 농맹인과 한국 농맹인을 소개만 시켜주면 알아서 대화 하는 모습을 보고 외국에 동행하는 것에 걱정이 없어짐
	해외컨퍼런스에 참여하기	-미국에 갔을 때 너무 좋았어서 다른 나라에 또 도전하고 싶음 -외국은 농맹인 생활에 대해 배울것이 많아 다양한 경험을 하였음 -외국에 갔던 추억은 넓은 세상을 경험한 느낌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돌아온 농맹인과 손세우미들의 변화	-외국에서 배운것들을 나누면서 손끝세도 그 이후 더욱 발전되었음 -통역해주는 내용을 기억해서 다른 외국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사명감을 가지고 통역해야겠다고 느낌. -마음가짐이 많이 변화되었고 농맹에 더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것을 다짐함 -외국 농맹인들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원 해야겠다고 다짐함
나아닌 다른 이를 위한 섬김	만나 나누기	-최 선생이 산파역할을 했다면, 나는 산파가 잘 낳을 수 있게 구조물 역할을 했음 -외국에 손세우미로 가야할 때 자비로 가는데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음 -부족하면 내가 내며 농맹인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보람을 느낌 -돈쓰는게 아깝지 않음, 빈손으로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함
	헬렌켈러에서 설리번을 꿈꾸다	-농맹인으로서 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교류하고 싶음 -믿지 않는 농맹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음 -전국에 숨어있는 농맹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김

### (1) 만남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던 농기반 농맹인은 손끝세를 통해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자기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손세우미를 만나게 되었다. 농인으로 살다가 농맹인이 된 후에는 농사회에서 조차 소외감을 느꼈는데 이제 동지가 생겨 그 만남이 반갑고 애뜻하다. 손끝세의 농맹인은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지와의 만남을 통해 이제야 비로소 소통다운 소통을 한다.

#### ① 동병상련: 고립에서 벗어나 동지를 만남

농기반 농맹인 모임을 애타게 기다려온 A씨는 제주도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때를 그리워했다. 자신과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진 농맹인의 모임은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더욱 간절해졌으며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렸다.

“제주도에 다녀온 후 다시 모이고 싶고 그림고 그랬어요. 함께 했던 사람들, 또 만나고 싶다 생각했죠. 언 제쯤 다시 모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10월에 모인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기뻐요. 한국 최초 농기반 농맹인 모임이잖아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농기반 농맹인 연구 참여자들은 농맹인 모임에서 농맹인을 만나기 전엔 세상에 농맹인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다. 농인으로 살다가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농인 친구와의 만남은 더 이상 ‘동병상련’이 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시각과 청각, 언어장애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기반 농맹인의 삶을 당사자가 아니면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맹인이 된 후에도 농인 친구들이 찾아와 놀아주었지만, 항상 함께 있지는 못하고 잠깐 놀고 헤어져 또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점자책을 빌려 읽고 반납하기를 반복하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소극적으로 변했으며 우울증까지 왔다. 그러던 중 손끝세에서 자신과 같은 농기반 농맹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농인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이고 농맹인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렸다. 농맹인 친구들을 만나면 통하는 게 많아 서로 소통이 잘되고 반가웠으며 애뜻했다.

“농맹인 친구 만나고 부터 농인 친구들 만나는 걸 줄이고 농맹인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요. 농인 친구 만나면 내가 농맹인 이라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고맙지만 부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농맹인 인데 친구는 농인이라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화를 해도 별로인 느낌이 들고요. 농맹인 친구 만나면 나와 상황이 같아서 더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만남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 ②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

손세우미들은 손끝세에 참여하기 전까지 농맹인의 존재를 몰랐다. 손세우미들은 20년 이상 오래 수어를 해왔지만 농인으로 살다가 농맹인이 되어 농사회에서 사라진 농맹인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음에 충격을 받았으며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농맹인을 처음 만났을 때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수어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농맹인에 대해 몰랐을까”(손세우미 참여자 4)

“헬렌켈러가 농맹인 인건 알았지만 나와 같이 사는 세상에 농맹인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지금까지 농맹인을 모르고 살았던 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손세우미 참여자 2)

손세우미들은 손끝세 첫 만남 때 한 농맹인이 자신이 시청각장애가 있음을 알리는 인조가족으로 된 표지를 앞뒤로 붙인 배낭을 메고 왔을 때 가슴이 아파 울었으며, 손끝세 4년을 지나면서 농맹인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이렇게 하지 못했던 지난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 지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 B씨가 손끝세 올 때 노란 레자에 '저는 청각 시각 언어 중복 장애자입니다'라고 쓰고 앞뒤로 매고 왔어요. 그때 완전 눈물바다였어요”(손세우미 참여자 3).

“농맹인 분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그전엔 어떻게 살았을까. 다 보셨던 분들이잖아요. 태어날 때 부터가 아니고 점점 안보일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싶은 거죠.”(손세우미 참여자 2)

농맹인 자신도 세상에 자신과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손세우미들도 태어나서 처음 만나본 농맹인이었기에 모든 것이 서툴렀다.

## (2) 성장통

손끝세 회원들은 서로에 대해 너무 아는 게 없었던 상태에서 모임을 시작하다보니 만나면 반가웠으나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모든 게 서툴렀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나아졌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방법을 배우고 익숙해져 갔다.

사람이 모여 있는 모임이라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

도 했다. 그런 과정 또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문제가 생길 때 마다 갈등이 빨리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로 맹기반 농맹인과 따로 모임을 갖게 되었으나 이제 손끝세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근육이 생겼다.

### ① 시행착오를 통해 더 배우게 됨

손끝세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농기반 농맹인 모임이어서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손끝세 회원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원받아야 하는지 알아가야 했고 농맹인 회원들도 그 시간을 이해하며 참아주었다.

손끝세에서는 통역을 배치 할 때 농맹인 회원 한 명에 손세우미 한 명을 배치하나, 통역사마다 전달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농맹인 회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자 오전, 오후 또는 일정별로 통역사를 교대해서 배치한다.

어느 날, 지방 여행 때 통역사 배치를 전체 카톡으로 주고받은 후 저녁을 먹기 위해 식사장소로 이동하였다. 차에서 내려 각자 교체된 농맹인 회원을 안내하여 식당으로 갔으나 한 농맹인을 담당할 손세우미가 교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원래 담당했던 농맹인과 함께 했고, 교대된 손세우미는 교대된 대로 담당하게 되었다. 한 명의 농맹인 회원에게 두 명의 손세우미가 지원하고 있었던 상황, 자신과 동행하는 농맹인 회원 외에도 두루두루 서로 도와주고 지원해주던 터라 그 상황이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으며 식당에 들어섰을 때 그 지역 목사님들의 섬김으로 진수성찬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에 모두 정신을 놓고 있었다.

농맹인과 함께 식당에 가면 눈앞에 있는 반찬들의 위치를 다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손세우미는 몸도 마음도 바쁘다. 한참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손세우미가 ‘A씨 어디 갔지요?’라고 했고, 모두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어 일부는 농맹인 회원을 찾으러 혼비백산 하며 뛰어나가고 일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낸 끝에 혼자 방치된 농맹인한테서 걸려온 전화, 어렵사리 찍은 티가 역력한 메시지로 ‘주차장 어디’ 문자 메시지가 왔다.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아찔한 상황,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농맹인 회원 혼자 남겨진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A씨는 주차한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차 옆에 딱 붙어 서 있었기에 안전한 장소였지만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손끝세 회원들과 운영진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때를 회상하며 A씨는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작년에 목포 갔을 때 횡집에서 모두 가고 저를 안내해 주는 사람 없이 제가 혼자 주차장에 남겨진 적이 있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었고 혼자 방황(망연자실)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경험 삼아 다음에 주의하겠지 생각했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그날 이후 손세우미를 교대할 때는 이전의 손세우미와 다음 손세우미가 맞교대하고, 교대 공지는 문자로 하지 않으며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맞교대하는 방법으로 바꾸게 되었다.

대부분의 손세우미들은 손끝세에 온 날이 농맹인을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이어서 인사하는 방법도 대화하는 방법도 배워본 적이 없다. 수어를 20년 이상 사용해왔다는 베테랑 통역사도 농맹인과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 찢찢매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농맹인마다 축수어를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다르고 시각의 상실 정도, 청력의 상실 정도가 다르기에 한 사람 한사람 맞추어가며 통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완전 떨렸죠, 일등으로 도착했어요. 그때 사모님도 처음 뵈고 여기 처음 왔는데 아무도 안 와 계시고, 오시면 어떻게 인사해야 해? 만나면 내가 인사 어떻게 하지? 인사해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손잡고 제 이름 처음 써드리고 간단히 인사했고요. 첫날은 자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근접수어통역을 했죠.”(손세우미 참여자 1)

축수어로 누군가와 소통하는 법을 모르기는 농맹인도 마찬가지였다. 시력 상실정도에 따라 가까이서 수어하면 보이는 저시력 농맹인도 있지만 시각으로는 전혀 수어를 인지할 수 없는 전농전맹 농맹인의 경우, 상대방의 수어를 만져서 촉각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낮은 사람의 손을 만진다는 것도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러나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했고 만남이 잦아지면서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촉각이 민감한 농맹인의 경우, 한손의 수어만 만져도 내용 인지가 가능할 정도로 발전했다.

“원래는 농맹인을 만나기 싫어서 소극적이었어요. 같은 농맹인 끼리 축수어로 소통하는 게 어색했기 때문이에요.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마음에 변화가 있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이어가던 손끝세는 농맹인을 안내하는 방법, 농맹인과 소통하는 방법도 모른 채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미국 라이트하우스의 농맹인 담당자인 C씨를 손끝세에 초대하면서 농맹인을 위한 통역방법, 안내방법, 에티켓 등을 하나하나 배웠고 손세우미들은 배우고 익히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모임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석하면서 통역을 했던 손세우미들은 농맹인 회원들에게 축수어로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농맹인 회원들도 선호하는 손세우미가 생겼다.

“어떤 통역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달 받는 양이 다르거든요. 어떤 통역사는 (잘 전해 줘서) 느낌이 좋지만 가끔 (잘 전달 못 받을 때도 있어서) 별로 일 때도 있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 ② 갈등을 통한 성장

어떤 사회나 어떤 모임이나 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손끝세도 성장통 같은 갈등과 가슴앓이가 있었다. ‘비온 후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성장통을 겪으면서 손끝세는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져갔다.

정안인, 청인도 간혹 음성으로 통화하지 않고 문자로만 대화가 오고갈 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듯이 농맹인 사이에도 문자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다. 그 갈등의 문자를 지켜보는 모든 회원들이 가슴을 졸이며 그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기도한다. 그 시간은 갈등의 원인인 농맹인 당사자뿐 아니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회원들도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다.

“손끝세 선교회는요. 마음 공부하는 곳이고 우리가 많이 성숙해지는 학습장인 거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것을 배우지 못 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뽀고 거침없이 ‘내 생각이 옳아’라고 행동했었는데 여기서서 서로 조율하고, ‘아, 이런 때는 말하지 말고 참아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때는 누구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을 많이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 같아요. 물 흐르듯이.”  
(운영위원 참여자 1)

손끝세에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배려의 정도가 다르다 보니, 다른 회원에 비해 경증인 회원이 서운해 하는 때도 있다. 전농전맹만 농맹인이 아니라 저시력 농, 저시력 난청, 맹 난청도 모두 농맹인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손끝세는 전농전맹과 저시력 농맹인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촉수어로 소통해야 하는 전농 전맹인에 비해 잔존시력이 남아 있고 수어 사용자인 저시력 농맹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저시력 농맹인들은 때로는 서운하고 외톨이임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전농 전맹인을 위해 자신이 농맹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농 전맹인 동지들을 안내하거나 지원하기도 한다.

“저는 시야가 좁고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제가 잘 안 보이는지 (걸으로는) 알아볼 수 없으니까 농맹인만 관심 가져주고 그랬어요. 나도 관심 받고 싶었는데 왜 나한테는 관심 안 주냐. 실망은 안했지만 좀 외로웠어요. 그냥 나는 혼자 활동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넘겼죠.”(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3)

농맹인은 시야가 좁거나 시력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손끝세는 알고 있었다. 시력이 남아 있어서 활동은 가능하지만 불편한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회원들이 외롭지 않게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손끝세의 시작은 맹기반 농맹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모임으로부터의 독립이었다. 4년이 지난 지금 손끝세 회원들은 맹기반 농맹인이 대표로 있는 '손잡다'에도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익혀야 할 것들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손끝세는 이제 성장통을 이겨내고 더 성숙해진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대전 장애인 선교회에서 맹농인 예배가 시작되었고 제주도에서 삐걱 하는 바람에 (손끝세가) 새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로 가는 모델로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방향을 잡아갈 것은 잡아가고 이런 이야기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농맹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있었구나를 확인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협력하고 돕고 나누는 관계로 발전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요.”(운영위원 참여자 2)

손끝세 운영위원들은 손끝세가 문화와 언어가 다른 농맹인 모임에서 독립하여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면서 농기반 농맹인과 맹기반 농맹인이 기반으로 나누지 않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 (3) 손끝으로 느끼는 예배

손끝세의 예배에는 여러 가지 통역 방식이 동원된다. 일반적으로 단상에는 설교자가 서는 것이 당연하지만 손끝세 예배에는 설교자가 단상 아래에 앉고 단상에 메인 수어통역사가 선다. 그 이유는 메인 통역사가 단상에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수어통역을 해주면 그 통역을 보고 농인통역사가 농맹인에게 축수어 통역을 해주고, 저시력 농맹인들은 앞자리에 가까이 앉거나 중간자리에 있는 커다란 TV 모니터를 통해 나오는 메인 통역사의 수어를 보기 때문이다.

농맹인 회원들은 손끝세 예배 때 설교에 특히 은혜를 받는다. 왜냐하면 송 목사가 준비하는 설교는 농맹인 맞춤 설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농맹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농맹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손끝세 농맹인에게 딱 맞는 설교라 은혜로워요. 보통 농인교회의 설교는 (문화가 다르니까)별로지만 손끝세에서 하나님이 농맹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따뜻한 느낌을 받죠.”(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3)

손끝으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농맹인 회원들은 농맹인이 되면서 사라진 줄 알았던 민

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느낀다. 농인으로 살다가 시력을 잃은 농맹인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신앙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기에 신앙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웠으나 손끝세에 참여하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있음을 고백했다.

또한 손끝세에 참여하는 손세우미들은 모임 때마다 한 문장 한 문장 축각으로 느끼며 말씀을 듣고 있는 농맹인 회원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연약함을 회개한다고 했다. 또한 손끝세 예배를 통역하면서 날로 밝아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농맹인의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은혜를 받으며 도전을 받는다.

손끝세 예배에서는 농맹인 회원들이 돌아가며 대표기도를 하고 특송을 한다. 한 달 전에 공지된 대표 기도를 위해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농맹인 이름을 말해가며 기도하는 회원,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간절히 부르짖는 회원, 그 기도를 보고 있는 정안인 회원들은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가식적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는지를 회개하는 시간이 된다. 농맹인 회원의 특송은 온몸으로 부르는 찬양이다. 들리지 않아 반주도 필요 없고, 보이지 않아 가사를 띄울 필요도 없으나 자기 나름대로의 리듬을 담아 특송에 간절하게 신앙고백을 담아낸다.

“제가 청인 교회 갔을 때는 그냥 예배다. 누가 대표 기도하시면 아, 하시나보다 그런데 A씨가 찬양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F씨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완전 느낌이(감동이죠) 감정이 좀 달라요.”(손세우미 참여자 2)

손끝세가 추구하는 목표는 농맹인 회원들이 이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행복해 지는 것이다. 손끝세는 예배를 통해서 농맹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시청각장애를 겪게 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농맹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길 소망한다.

#### (4) 제 2의 가족

가족은 다른 말로 ‘식구(食口)’라고도 한다. 그 의미는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손끝세는 4년 여를 함께 해오면서 함께 소통하고 예배하면서 삶을 나누었기에 그런 의미에서 식구이고 가족이다. 세상에서 혼자인 줄 알았던 고립에서 벗어나 손끝세에 나오면서 이제 만나야 할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겼고, 그 안에서 사랑을 키워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다.

#### ① 못 만나도 외롭지 않은 신세계, SNS

농맹인 회원들이 손끝세에서 당사자 간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도구가 ‘한소네’라는

점자정보단말기이다. 농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면 촉각으로 수어를 읽는 것은 물론이고 점자를 배워 손끝으로 읽는 능력을 훈련하고 키워야한다. 점자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차이는 매우 크다. 웹상에서 보여 지는 정보를 점자로 읽을 수 있는 도구인 점자정보단말기의 소유 여부도 정보 습득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

농맹인 회원 중에 점자정보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회원이 다른 농맹인들에게 점자정보단말기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손끝세를 통해 알게 된 단체로부터 기기를 대여 받고 방법을 익혀 사용하면서 손끝세 카톡방은 매일 시끌벅적하게 되었다. 물론 아직 점자를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농맹인 회원들이나 점자정보단말기를 갖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모르는 농맹인 회원들은 활동지원인이나 시설의 담당자를 통해 정보와 소식을 전해 들어야 하지만, 점자정보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과는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다.

점자정보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농맹인 회원들은 손끝세 모임이 없는 날에도 카톡으로 회원들과 수다를 떨며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외롭지 않다. 손끝세 단체 대화방 뿐 아니라 농맹인 친구들과도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며 소식도 듣고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한소네와 연결해서 카톡을 설치한 후 카톡으로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고 심심하지 않았어요. 한소네 덕분에 다른 농맹인이 모이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나면 한소네도 읽고 너무 재미있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농맹인 회원들은 손끝세에 모임 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누며 함께 발전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누가 옆에 있는지 농맹인은 알 수가 옆에 누가 있는지 알려주고 서로 손잡아 주어야 그때부터 소통이 이루어지고 정보 교환도 가능하다. 손끝세는 농맹인 회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농맹인 당사자들의 자조가 형성되고 서로 지원하고 도와가며 성장하고 있다.

## ② 사랑을 만나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에나 ‘사랑’이 있다. 친구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지만 남녀 간에 짝트는 사랑은 손끝세 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농기반 농맹인 참여자는 손끝세 모임에 참여하는 동안 마음에 드는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되어 화이트데이 때 사랑고백을 하였다. 화이트데이는 보통 사탕을 주고받지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 굴비를 선택하였다. 참여자와 같은 농기반 농맹인 여자 친구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었고 농맹인이 되면서 혼자 평생 살 것 같았던 참여자는 손끝세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행복하다.

“3월14일이 화이트데이인데 사탕을 줄까 하다가 선물로 굴비를 보냈어요. 선물을 받은 여자친구가 ‘이게 뭐예요’(화이트데이인데 굴비라니)라고 했지만 며칠 후 잘 먹겠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 후로 연애가 시작 되었어요. 손끝세가 없었다면 저 혼자 평생 힘들고 답답하게 살았을 텐데 애인 만나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니 더 힘내서 손끝세에 참여할 수 있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 ③ 외로움 대신 그리움, 또 하나의 가족

손끝세에 참여하는 농맹인 회원들은 이제 외로움 대신 그리움을 이야기한다.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모임을 못하고 있어 손끝세 모임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그리움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혼자여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모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기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고 있고, 함께 여행했던 추억을 그려보며 손끝세와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모임 없을 때는 손끝세 회원들과 카톡도 하고 손끝세 모임을 기대하며 지내요. 손끝세에서 여행하고 교제하고 했던 추억들이 많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못 보니까 안타까워요. 눈이 보이면 사진을 보며 ‘아 그랬었지, 하나님 은혜지, ,’ 할 텐데 보이지 않으니깐 느낌으로 추억하는 거지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 보는 거예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K씨는 국민일보에 나온 손끝세 회원들의 인터뷰 기사를 접하고 젓먹이 아이 때문에 손끝세에 오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속상해 했다.

“손끝세 회원 몇 명이 얼마전에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농맹인에 대한 집중 인터뷰 기사요. 헬렌켈러가 되고 싶은 꿈을 꾸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그냥 애기 키우고 밥 주고 생활할 뿐.”(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3)

만남에 대한 기대로 생겨나는 ‘그리움’은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동지가 있음을 아는 마음이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진행되는 손끝세 모임은 참석하는 농맹인 회원들과 손세우미들에게 친정 같은 곳이고, 회원들은 삶의 일부이며, 당연히 만나야 하는 피붙이 같은 사람들, 친구, 가족이 되었다.

“그냥 감사해요. 저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볼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농맹인과 함께 하는 삶이 친구 만나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만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그런 느낌.”(손세우미 참여자 1)



손세우미 참여자 4는 처음 농맹인을 만났을 때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들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손끝세에 함께 하면서 이제는 장애가 보이지 않고 친구로 보인다는 고백을 한다. 손세우미 참여자 3은 농맹인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아들이 엄마가 수어통역사라는 이유만으로 농맹인과 함께 해주길 부탁했는데 ‘농맹인은 우리가 찾아다니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느냐’는 아들의 간곡한 애원 때문에 손끝세에 함께하게 되었다. 엄마와 함께 농맹인을 위한 사역을 할 것을 꿈꾸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손세우미 참여자 3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으나 손끝세 식구들의 위로에 큰 힘을 얻어 괴로운 마음을 털고 일어났으며 이제는 손끝세가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 (5) 촉각으로 함께 하는 시간

손끝세는 한 달에 한 번 모임 때 여행, 요리 대회, 선물교환, 시각장애인용 윗놀이, 레크리에이션,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특징적인 것은 그 모든 활동들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할 것이 정해지면 그것을 위해 계획을 세우지만 다음 달에 무엇을 할지, 올해 무엇을 할지, 예산이 얼마나 들지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 모든 행사와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농맹인 회원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손끝세 여행의 특징은 농맹인 회원들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맹인 스스로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도전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흔쾌히 도전의사를 밝히면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손끝세 여행시간이다.

“손끝세에서 어린이대공원 간 것이 즐거웠고, 2년 전에 천안에서 해보았던 짬라인이 재미있었습니다. 4명이 함께 했던 자전거, 부산 해운대 바다를 느끼며 불만과 속상함 등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회도 먹어서 좋았고 목포에서 배 탔던 것도 좋았는데 무엇보다 짬라인과 자전거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보이지 않는 사람이 요리를 할 수 있을까? 손끝세 회원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의문이 없다. ‘어떤 요리를 해야 함께 만들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

연말이 되면 2부 순서에 각자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다른 회원이 가져온 선물과 교환하는 시간이 있다. 선물을 준비해 오지 못한 회원들은 손끝세에서 준비한 선물로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2부 순서는 농맹인 친교부장인 E씨가 맡아 진행하는데 E씨는 어떻게 하면 손끝세 회원들이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연구하고 고심하지만 농맹인 회원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해 항상 아쉽다.

“예배드리고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데요. 제가 친교부장이라서 윗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죠. 손끝세 모였을 때 충분히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사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모임 마치고 바로 가야 하는 게 아쉬워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농기반농맹인 회원들은 촉수어로 소통하는데 농맹인으로 살면서 궁금했던 것을 서로 물어 보기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우울해진 마음을 위로받는다.

“손끝세 모임 때 농맹인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서로 물어보고 배워요. 마음이 힘들 때 (서로)물어보고 답하고 그러죠, 그것이 재미있어요. 한소네 정보도 얻고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 (6) 해외문화를 경험하며 더 성장하게 됨

손끝세와 함께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지만, 그중에서 농맹인 회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 하려면 손세우미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간 경험을 꼽는다. 어두운 방안에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손잡아 주는 동지가 있어 용기를 내었다. 농맹인 회원들은 외국에 가서 경험할 일정뿐 아니라 그 날을 위해 준비하는 일로 분주한 삶도 신난다. 한국을 넘어 세계의 농맹인 동지들을 만나고 난 후 마음도 넓어지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졌다.

2017년에는 농맹인 4명과 통역 3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시각장애인복지관 ‘라이트하우스’를 방문하고 나파지역에서 개최된 ‘농맹인 캠프’에 참여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일본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농맹인컨퍼런스에 농맹인 3명과 손세우미 5명이 참여했으며, 2019년에는 농맹인 4명과 손세우미 6명이 호주에서 개최된 DBI(Deafblind International)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농맹기관을 방문했다.

### ① 제 2 외국어를 배움

한국 농맹인이 외국 농맹인과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는 청인이 영어를 배우듯이 농맹인도 외국 수어를 배워야만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 정안인의 경우 외국인과 대화할 때 음성을 듣거나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소통할 수 있어 중간에 통역사가 있더라도 내용 전달하는 것 이외에 상대방과 눈도 맞추고 교류가 가능하나 농맹인의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직접 소통하지 않으면 외국 친구와 교류하는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 캠프에 참석할 때는 비행시간 11시간 동안 연구자가 농맹인 참가자들에게 미국 수어를 가르쳐 주었고, 현지에서는 외국 통역사들과 어렵사리 소통하면서 일정을 소화했다. 비행기 안에서 11시간 동안 배운 미국수어는 12일간의 미국일정에서 요긴하게 쓰였고, 다음 외국 일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언어 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해외 일정이었던 일본은 미국행보다 좀 더 철저한 준비로 진행되었다. 일본으로 출발하기 한 달 전부터 부산, 광주, 서울에서 일본수어 스테디를 진행하였다. 스테디 형식은 일본수어 교재를 선택하여 서울에서 참가하는 농맹인을 위해 서울 팀, 광주와 부산에서 참가하는 농맹인을 위한 광주, 부산 팀 스테디가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미국에서 소통이 서툴렀던 것과 달리 일본 컨퍼런스 때는 원활히 소통이 되었고 선행학습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처음 외국 캠프에 갔을 땐 모든 것이 서툴렀어요. 외국 농맹인을 만났을 때 소통도 잘 안 되었어요.(제가 외국 간 것이 처음이라) 두 번째로 해외에 간 일본은 소통이 잘 되었어요, 재미있었고요. 일본 농맹인들과 밤에 찻집에서 만나 대화할 때 좋았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농맹인 참가자들과 함께 일본수어 스테디를 했던 손세우미에게도 선행학습은 신기한 경험이었다. 컨퍼런스가 진행되면서 앞에서 누군가 발표를 할 때는 한국수어로 축수어 통역을 했지만 쉬는 시간, 자유시간이 되면 한국 대표로 간 농맹인 회원들의 손을 잡고 외국 참가자들에게 안내해주면 임무가 완료되는 현상을 체험했다.

“저희가 가기 전에 일본수어도 공부하고 갔잖아요. 처음 갔을 때 짝꿍이 B님 있었는데 일본 농맹인이 마침 옆에 계셔서 두 분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B씨가 일본수어 짜내서 대화하고 헐 잘하시네.. 난 중간에 소개만 잘하면 되겠다, 그때부터 걱정 없었어요.”(손세우미 참여자 2)

호주 컨퍼런스를 위해서 농맹인 참여자와 손세우미들은 3개월간 국제수화를 스테디 했다. 농맹인 참여자들은 축수어로 외국 농맹인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한국인과는 다른 축감의 손을 가진 외국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신기했다.

“수어로 대화는 어려웠지만 통역사 없이 직접 외국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외국인들과 대화할 때 한국 사람의 손의 느낌과 달라서 신기했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호주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국제수화 스테디를 3개월의 일정으로 잡았지만 국제수화는 한국 수어와 너무 다른 패턴을 사용하다보니 원활한 소통은 어려웠다. 하지만 국제수화를 더 열심히 배워서 외국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하기엔 충분했다.

“외국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호주가기 전에 국제수화를 미리 배우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고 외국 사람들 만나니까 전에 배웠던 게 하나도 기억 안 나서 당황했죠. 국제수화를 잘 하는 한국 농맹인 친구에게 물어봐서 대화하고 그 친구가 전해주고 그랬어요. 앞으로 국제수화 열심히 배워서 외국에 가게 될 때 외국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 ② 해외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미국, 일본, 호주 컨퍼런스 참가는 라이트하우스, 손끝세, 헬렌켈러센터 등으로부터 일부 후원도 있었지만 농맹인 참가자와 손세우미 모두 적지 않은 금액을 자비로 충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맹인들과 손세우미의 해외 일정은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었고 소중한 경험을 갖게 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고 있는 라이트하우스는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서 농맹인이 자립훈련을 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식당, 교육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4명의 한국 농맹인은 일주일간 그곳에 머물며 보행훈련, 요리훈련, 응급상황 대피훈련 등을 했다. 일주일 후 개최된 농맹인 캠프에서 미국 참가자들과 함께 지내며 문화를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미국에 농맹인 회원들과 손세우미들과 갔을 때 너무 좋아서 다른 나라에 또 도전하고 싶어요. 참았다가 인도에 가길 기대하고 있어요. 외국의 점자정보단말기를 보니까 (한국제품과)느낌이 다른 거예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해외 컨퍼런스나 캠프에 참여한 농맹인 회원들은 외국 농맹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그 나라에서 농맹인을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에 돌아와 농맹인 당사자로서 개인을 넘어 농맹인 리더의 마음가짐으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은 아직 (농맹인 관련) 발전되지 않았는데 외국은 농맹인의 생활에 대해서 배울 것도 많아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왔어요. 호주에 다녀온 후 마음가짐이 많이 변화된 거 같아요.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앞으로 농맹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활동하고 싶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농맹인들은 해외 일정을 통해 한국의 것과 다른 것, 다른 맛, 다른 문화 등을 경험했다. 외국 농맹인 친구들을 사귀어 직접 물어 보기도 하고 만지며 느끼면서 혼자만 감혀 있던 우물을 탈출하여 넓은 세상으로 나왔다.

“미국, 일본, 호주 갔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넓은 세상을 경험한 느낌이었고 추억도 많아요. 서로 만나서 게임하고 회의하고 재미있었어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농맹인 연구 참여자들은 미국, 일본, 호주를 여행하면서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외국의 농맹인 당사자 친구들과의 교류도 있었으나, 미국 헬렌켈러센터나 시각장애인복지관 라이트하우스, 일본 맹농인 지원센터, 호주 농맹인협회 등 각국의 농맹인을 위한 협회나 기관 탐방도 하면서 한국에도 그와 같은 기관이 설립되기를 소망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또한 해외 탐방의 경험은 한국에서 농맹인 관련연구나, 포럼이 있을 때 해당 국가에 직접 다녀온 당사자로서의 경험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 ③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돌아온 농맹인과 손세우미들의 변화

농맹인 회원들이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손끝세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국 방문 전에는 남자 농맹인이 화장실을 갈 때, 여자 손세우미가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주변의 다른 남자 손세우미에게 대신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남자 농맹인을 화장실 안 소변기까지 안내하고 농맹인 회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에 다녀온 후 농맹인들은 미국 라이트 하우스에서 배운 대로 예배실이나 교제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을 연습했으며 이제는 화장실이 같은 층에 있는 경우 ‘화장실 다녀올 게요’하고 혼자 다녀온다.

식사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손끝세의 점심시간은 언제나 뷔페식으로 차려져 있어 농맹인은 자리에 앉아있고 손세우미들이 자기 밥 뜨랴, 농맹인 회원 밥 뜨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미국에서 메뉴 설명하는 법, 메뉴 설명 듣는 법을 배운 농맹인 회원들은 뷔페식으로 차려져있는 배식대에서 오늘 메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듣고, 자기가 먹을 만큼 스스로 접시에 음식을 담는다. 물론 농맹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미국에 다녀온 농맹인 회원들은 음식 설명 듣고 스스로 떠가는 것이 익숙해졌다.

손세우미가 음식을 가져다주었을 때 농맹인은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이 접시에 담겨 있어도 억지로 먹거나 남겨야 했고, 너무 많은 양, 또는 너무 적은 양이 담겨 있을 때는 남기거나 더 달라고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스스로 먹고 싶은 만큼 떠온 식사에선 오늘 메뉴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아는 상태에서 기호에 따라 골라먹을 수도, 먹고 싶은 만큼 떠먹을 수도 있게 되었다.

“미국 다녀와서 마음이 넓어지고 제가 발전된 것 같아 좋았어요. 미국 안 갔다면 발전 없었을 거예요. 미국에 다녀온 후 느낀 게 많았고 더 노력해서 손끝세가 발전했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농맹인 회원들과 외국에 동행했던 손세우미들의 마음가짐도 가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졌다. 외국 농맹인들의 자유분방함과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농맹인은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깨졌고 그런 기회가 또 있다면 한국 농맹인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한다.

“호주의(컨퍼런스) 내용을 통역해 드릴 때 너무 기억을 잘하시고 어느 나라의 기술로 농맹인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할 때 그걸 기억해서 대화하시는 거 보고 통역을 정말 똑바로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손세우미 참여자 2)

“외국의 농맹인들은 자신감이 정말(많아요) 멋있게 입고, 외국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빨간 드레스에 멋있게 다녀요, 농맹인 맞아? 생각할 정도로 강의도 다니고 그래요. 안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하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손세우미 참여자 2)

## (7)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섬김

손끝세는 1년을 시작하면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다만 1년이 지난 12월에 하나님께서 손끝세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결산만 할 뿐이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경험한 손끝세 회원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낸다. 농맹인 회원들은 손끝세와 함께 하면서 고독하고 외롭던 방에서 나와 세상을 경험하고 나니 과거의 자신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농맹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 ① 만나 나누기

손끝세는 지난 4년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채움을 경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새벽마다 내려주시던 ‘ 만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셨다. 영락농인교회에서 매달 챙겨주는 풍성한 점심식사와 외부에서 후원해주시는 손길, 여행 때마다 기쁨으로 대접해주시는 정성들을 맛보았다.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듯이 그 사랑을 경험한 손끝세 회원들의 마음도 언제나 풍족하여 다른 이를 위해 흘려보낸다. 농맹인이 발견되어 지거나 손끝세로 찾아오면 손끝세는 농맹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구상한다. 그것이 운영위원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최 선생님은 농맹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를 쓰며 산파역할을 하셨지요. 나는 산파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고 구조물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운영위원 참여자 2)

손끝세의 손세우미들도 그 마음을 닮았다. 자신이 쓰여야하는 상황이 오면 아까운 마음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외국에 통역으로 동행을 해야 할 때도 항공비며, 숙박비를 자비로 감당한다. 손끝세에서는 해외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농맹인, 손세우미들에게 60만원씩 지원한다. 농맹인 회원들과 짝으면 일주일, 길면 2주일의 해외일정을 동행할 때, 농맹인 회원 1명을 위해 적어도 3명의 손세우미가 필요한데 통역비도 없이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비로 가야하는 해외일정에 동행할 수 있는 통역사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자비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함께 해주는 통역사들이 손끝세의 손세우미다.

“일본이랑 호주를 자비로 갔는데 손끝세 모임이 좀 이상해요. 세상에서 내가 놀러 갈 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가면 10만원도 아깝잖아요. 근데 손끝세는 내돈 300만원 내고 가도, 하루 종일 통역하고 잠도 못자도 아깝지가 않더라구요. 그게 신기해요. 돈만 생각하면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 기간에 수어통역 하러 가면 수입이 있는데 그거 다 놔두고 가도.”(손세우미 참여자 1)

“그냥 부족하면 내가 내고 하나님이 다 아실 테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농맹인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보람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생각해요.”(손세우미 참여자 2)

“왜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을까요? 이 주머니에 머니(money) 채워 주시고 빈손으로 안가게 해주세요. 마 음껏 부어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농맹인을 참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손세우미 참여자 4)

손끝세에는 매 행사마다 풍성한 나눔과 먹을거리가 있었고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매달 장소를 제공해주고 식사로 섬겨주는 영락농인교회와 성도들의 수고도 간과할 수 없다. 영락농인교회는 매달 손끝세 모임을 위해서 점심식사로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주방 봉사로 풍성한 점심식사가 매달 제공된다. 주방에서 식사로 섬기던 봉사자는 손끝세 모임을 어 깨 너머로 보다가 아예 손세우미가 된 경우도 있었다.

“교회에 손끝세모임 시작했을 때부터 요리봉사를 했어요. 요리하면서 농맹인들 모습을 보고 나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농맹인의 접시에 영클어지게 놓인 음식들을 보면서 구분해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때부터 참여하게 되었는데 아무나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고 (손세우미로) 참여하면 도와줄

수 있겠다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손세우미 참여자 2)

영락농인교회 외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는 분들이 있었기에 손끝세 모임과 행사는 늘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다.

## ② 헬렌켈러에서 설리번을 꿈꾸다

손끝세는 2018년부터 농맹인 당사자 부장단을 선출하여 당사자 중심으로 행사 기획, 의사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였다. 2017년 미국 농맹인 캠프와 2018년 아시아농맹인컨퍼런스를 참가했던 농맹인 당사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운영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다. 농맹인 부장단은 리더가 된 후 자신의 경험들을 다른 농맹인에게도 알려주고 돕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고, 헬렌켈러의 삶을 살던 농맹인이 다른 헬렌켈러를 돕는 설리번이 되고 싶어 했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숨어 있는 농맹인이 많아요. 농맹인 문화도 모르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농맹인마다 각자의 경험이 있잖아요. 내 경험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서로 교류하면서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내가 손끝세에 참여하고 생긴 변화는 앞으로 다른 농맹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농맹인이 있으면 복음 전하고 싶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손끝세에 안내해주고, 손잡다에 데려다주고 싶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3)

손끝세에 4년을 참여하면서 농맹인 회원들은 정기적인 모임이 생겼고 안정감을 되찾았다. 아직 발견되지 못한 농맹인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며 자신이 손끝세에 참여하면서 동료가 생기고 가족이 생긴 것처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다른 농맹인들이 빨리 발견되길 바란다. 자신들이 손끝세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 했듯이 그들 또한 손끝세와 함께 하며 복음을 듣길 소망했다.

“앞으로 손끝세를 통해서 전국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전국의 농맹인들이 12000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농맹인들이 많을 거예요, 모두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손끝세 모임이 더 풍성해졌으면 해요.”(농기반 농맹인 3)

손끝세는 농맹인이 모이고 교제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손끝세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0시 30분으로 못 박아 놓은 그 시간은 농맹인 회원들에게 당연히 자



신의 가족 같은 동지가 있다는 안정감을 주었으며 손끝세는 이름대로 '손끝으로 여는 세상'을 실현하고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인 손끝세 선교회의 형성과 발전과정, 구성원의 참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과 FGI, 참여관찰, 문서 수집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손끝세의 형성 및 발전과정은 '손끝세의 태동', '기초다지기', '어우러지지 못함', '독립하기', '새로운 시작', '손잡고 함께 가기',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의 참여경험은 7개 범주 ('만남', '성장통', '손끝으로 느끼는 예배', '제2의 가족', '촉각으로 함께 하는 시간', '해외문화를 경험하며 더 성장 하게 됨',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섬김'), 14개 하위범주, 53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에 관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조집단 형성과 발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으로 가능하였다. 손끝세는 농맹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중복장애로 인해 상처받고 닫힌 마음은 사회적 지원과 제도만으로 치유될 수 없고 그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할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 손끝세는 예수님을 모르는 농기반 농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회원 중에는 손끝세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세례를 받은 회원들도 있고 실명으로 방황하고 예배할 수 없었던 신앙생활이 회복되었다고 고백 한 회원도 있었다.

손끝세 운영위원들이 항상 고백하는 것은 '손끝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다. 농기반 농맹인은 근접수어나 촉수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 아무리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손끝세에서는 회원 한 명 한 명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회원들은 아직 손끝세에 오지 못한 농맹인들 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손끝세는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나의 은혜도 경험하고 있다. 매년 적지 않은 비용이 손끝세 모임을 위해 쓰여 지는데도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셨고 쓰고도 남는 것은 더 필요한 단체에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손끝세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사람이 계획할 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매순간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다. 농맹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물질적,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

는 것은 복음일 수밖에 없다.

둘째, 자조집단 형성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농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수어를 제 1언어로 하는 자조집단을 형성함으로써 농기반 농맹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농맹인 자조집단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농기반 농맹인들이 적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소통의 부재와 상이한 문화 때문이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농맹인으로서의 공통점은 있었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성장해 온 문화 환경이 달랐기에 적응이 쉽지 않았다. 손끝세는 이 점을 해소하고자 농기반 농맹인만의 자조집단을 형성하고 개인별 수어통역을 지원하면서 회원들이 자조집단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0시30분 영락농인교회’라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함으로써 참여하는 농맹인에게 ‘지속적인 모임’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오랜 시간 고립되어 있던 농맹인에게 동지를 만들어 주었다.

손끝세는 전국에 흩어져 생활하던 농기반 농맹인들이 가족, 지인, 친구들에 의해 손끝세 모임의 정보를 듣고 찾아 올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활동과 모임을 지속해왔다. 손끝세는 모임 때 마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보고 주변에 농맹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오거나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손끝세에 함께 하게 된 회원들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외부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참여하는 모임과 행사의 폭도 넓어졌다.

회원들은 손끝세 모임을 통해 동료상담을 받고 단체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면서 농맹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그러나 손끝세의 소재지가 서울이어서 지방의 농기반 농맹인들이 손끝세에 참여하려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손끝세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는 있으나 거점 지역에 손끝세와 같은 자조집단이 생긴다면 더 자주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조집단 참여를 통한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손끝세는 회원들이 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해 개인적 역량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손끝세는 초창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해 왔다. 2018년부터는 농기반 농맹인 부장단을 리더로 세움으로써 당사자 중심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더십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대외 활동 시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농맹 관련 해외 컨퍼런스 참여와 기관방문과 같은 국제교류를 지원하여 당사자 리더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사회참여와 활동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백은령, 2003: 107). 농맹인이 사회참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농맹인은 더 발전하고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농맹인의 능력

을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되며 농맹인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이고, 적절한 지원과 도움이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최숙희·최인옥 역, 2019: 13).

넷째, 농기반 농맹인과 세상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수어통역사 양성과 배치가 필요하다. 손끝세는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농맹인을 위한 수어통역사를 양성하고 있다. 농기반 농맹인이 어느 곳에 있든 통역지원을 원활하게 받으려면 전국에 손세우미와 같은 촉수어 통역사들이 있어야한다. 농기반 농맹인이 사용하는 촉수어는 일반 수어와 다르지 않으나 농맹인을 처음 만난 수어사용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것은 농맹인마다 촉각으로 수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고, 시각장애로 인해 표정을 볼 수 없으니 오롯이 촉수어로만 의미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농맹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수어 모양이나 수어 단어 선택 등을 조절하며 통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맹인을 만나서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원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농맹인을 위한 안내 방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농맹인에 대한 에티켓도 배워야 농맹인과 소통할 수 있다.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농맹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과정에서 교육 받은 사람은 296명이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습까지 진행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실제 농맹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원은 전국에 20명 내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다. 농기반 농맹인이 사회에 나올 수 있으려면 전국에 위치한 수어통역센터에 전문적인 통역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자조집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손끝세는 관련 기관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회원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손끝세는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회원들이 기회가 많아진 것은 다른 단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회원들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농맹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농맹인 관련 포럼, 강연, 간담회 등이 생기고 있으나 농맹인 당사자와 연락이 닿아야 참여가 가능한데 그 플랫폼 역할을 손끝세가 하고 있다.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서 진행하는 ‘농맹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과정’, ‘농맹인을 위한 의사소통지원방법’교육에 농맹인 당사자 강사로 손끝세 부장단 네 명이 파견된다. 횡수가 거듭될수록 농맹인 강사들은 짜임새 있는 강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모임이 없는 평소에는 강연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손끝세만 운영했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관련 단체와 함께하면서 더욱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단체든지 농맹인과 관련된 단체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농맹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손끝세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세상에 자신만 홀로 갇힌 줄 알고 살아온 농맹인을 세상 밖으로 손잡아 이끌며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

야 한다.

본 연구는 농맹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 농기반 농맹인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농기반 농맹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의 발전과정과 참여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관련된 자조집단의 성공을 위한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도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손끝세 선교회라는 기독교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비기독교인인 농기반 농맹인에게는 일정 정도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손끝세는 이제 4살이 되었다. 그냥 4살이 된 것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현재의 손끝세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일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출생부터 지금까지 손끝세를 키워오셨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심을 믿는다.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 우리나라 농맹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학교가 되고 일터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손끝세가 되길 소망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강현숙·김원옥·김정화·왕명자·조종희 (2004). 뇌졸중 후 대상자의 동서재활 자조관리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4(7), 1351-1361.
- [Kim, H. S, W.O. Kim, J. W. Kim, M. J. Wang and J. H. Cho (2004). Effect of East-West Self-help Group Program for Rehabilitation of Post Stroke Cl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7), 1351-1361.]
- 고경희·백은령 (2019). 농인의 맹 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연구**. 10(2), 27-56.
- [Koh, K.H. and Paik, E. R (2019).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Deaf who Developed Visual Impairment. *Disability & Social Welfare*. 10(2), 27-56].
- 김성천·김승용·김연수·김현수·김혜성·민소영·박선영·, 백은령·양소남·유명이·유서구·이기연·정희경·조현순·최말옥·최지선·함철호 (2020). **사례관리론: 개념, 기술, 실천역량 이해**, 서울: 학지사.
- [Kim, S. C., S. Y. Kim., Y. S. Kim., H. S. Kim., H. S. Kim., S. Y. Min., S. Y. Park., E. R. Paik., S. N. Yang., M. Y. Yu., S. K. Yoo., K. Y. Lee., H. K. Chong., H. S. Cho., M. O. Choi., J. S. Choi., C. H. Ham (2020). *Case Menagement*. Seoul. Hakjisa].
- 박경란 (2020). 일본 시청각장애인 현황과 지원 실태 분석,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2), 41-64
- [Park, K. R (2020). Analysis of State of the Deaf-Blind in Japan.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11(2), 41-64].
- 박순희 (2007). 농맹인 교육과 재활동향 분석. **시각장애연구**, 23(1), 1-22.
- [Back, S. H (2007).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f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for the Deaf-Blind.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3(1), 1-22].
- 박중휘·정지훈 (2008).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상황 실태 분석. **시각장애연구**. 24(4), 43-61.
- [Park, J. H and J. H. Jeong (2008). Analysis of Disability State of the Deaf-Blind.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4(4), 43-61].
- 박혜선·이종익 (2016). 자살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2, 277-311.
- [Park, H. S and J. I. Lee (2016). A Study of participation experience in a support group for family bereaved by suicid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2, 277-311].

- 백은령 (2003). **지체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요인과 사회통합정도를 중심으로**. 문학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Paik, E. R (200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Focused on the environment alfactors and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서해정·고아라·임수경 (2017). **시청각중복장애인(Deaf-Blind)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Suh, H. J., A. L. Ko., S. K. Lim (2017). *Study on the Needs and Actual conditions of Deaf-Blind People*.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 서해정·임수경 (2018). **시청각중복장애인(Deaf-Blind)의 일상생활 욕구에 관한 탐색연구**. 장애인복지연구, 9(2), 97-127.
- [Suh, H. J., S. K. Lim (2018). Study on the Daily Life Needs of Deaf-Blind People. *Disability&Social Welfare*, 9(2), 97-127].
- 양혜원·김희수·최정숙 (2016). 저소득 이혼 한부모 자조집단에 관한 질적사례연구-월계종합사회복지관 '징검다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3, 117-159.
- [Yang, H. W. H. S. Kim and J. S. Choi (2016).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Low-Income Divorced Single Parents Self-help Group: Focusing on the Case of 'Jinggomdari' at Wolgye Social Welfare Cente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3, 117-159].
- 조원석·김경미 (2018).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적 삶 지원 기반에 대한 연구: 이동, 의사소통, 정보·통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9, 57-80.
- [Jo, W. S and K. M. Kim (2018). Studies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supporting the independent living of Deafblind people: navigating the environment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9, 57-80].
-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201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 서울: 학지사.
- [Cho, H. S., Jung, S.W. Kim., J. S. & Kwon, J. S.(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200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좌현숙·김예성·오승환 (2013). 초점집단면접을 이용한 소년소녀가정 제도 개선연구:가정위탁보호 지

- 정의 장애요인 및 전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6, 116-137.
- [Jwa, H. S., Y. S. Kim and S. H. Oh (2013). A Study on Improvement of Youth-headed Family : Focusing on Analysis on FGI. *Forum For Youth Culture*, 36, 116-137].
- 조성재 역 (2017). **농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Scott, M. Stoffel (2012). *DEAF-BLIND REALITY, Living the Life*(1st ed).서울: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 [Choi, S. J (2017). *DEAF-BLIND REALITY, Living the Life*(1st ed). Seoul. Siloam Center for the Blind. Trans. Scott, M. Stoffel (2012). Gallaudet University Press].
- 주혜선·이해균·류현 (2015). 국제 학술지 분석을 통한 맹농인 관련 연구 동향 조사. **시각장애연구**, 31(3), 231~253.
- [Joo, H. S., H. G. Lee and H. Ryu (2015). Investigation of the Research Trend in Studies Related to the Deaf-Blind by Analyzing the International Journal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31(3), 231-253].
- 최숙희·최인옥 (2019). **농맹인과 함께하기**. Theresa, B. Smith (2002). *Guidelines: Practical Tips For Working and Socializing with Deaf-Blind People*. 서울: 손잡다.
- [Choi, S. H & I. O. Choi (2019). *Guidelines: Practical Tips For Working and Socializing with Deaf-Blind People*. Seoul. Hold Hands. Trans. Theresa, B. Smith. (2002). Maryland : Sign Media, Inc].
- 후쿠시마 사토시 (2007). 일본의 시청각장애인(시각·청각 중복장애인)의 현황, **시청각중복장애인 교육과 재활 국제세미나 자료집**. 11-23
- [Fukushima, S (2007). *State of the Deaf-Blind in Japan. Education and International Seminar for Rehabilitation*, 11-23].
- Linda, F. K (1997). *Self help and support group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Marion, H (2013). Deafblind People, Communication, Independence, and Isolation. University of Glasgow.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8(4), 446-463.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Disabled person welfare law 16733 Decided December 3, 2019]
- 에이블뉴스. 2016. 9. 2일자 “미국 시청각중복장애인협회 ‘NCADB”  
<https://www.ablenews.co.kr/news>, (검색일 2005. 11. 15)

[“North California Association of the Deaf-Blind, ‘NCADB’”, Able News (2016. 9. 2). Retrieved from <https://www.ablenews.co.kr>, (2005. 11. 15)]

한국농아인협회. 2020. 6. 30일자 “농맹인 회원 현황 결과보고서”

[“Report of Deaf-Blind who is member of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2020. 6.30)]

설리번의 손 헬렌켈러의 꿈 2007. 4. 15일자. “우리 카페는요”

<http://cafe.daum.net/kdbu>, (검색일 2020. 11.17)

[“Our cafe is”, Dream of hand(2007.4.15).Retrieved from <http://cafe.daum.net/kdbu> (2020. 6. 30)]



#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손끝세선교회'를 중심으로-\*

A Qualitative Case Study on Self-help Group for the Deaf-Blind:  
Focusing on the Case of 'Sonkkeutse' Missionary Society.

고 경 희 (총신대학교)

백 은 령 (총신대학교)(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논문초록

본 연구는 손끝세선교회의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참여자들의 참여 경험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연구로, 이를 위하여 손끝세농맹인 선교회에 대한 사례연구를 심층면접자료, 참여관찰자료, 문서자료 및 시청각자료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손끝세의 형성 및 발전과정은 손끝세의 태동, 기초다지기, 어우러지지 못함, 독립, 새로운 시작, 손잡고 함께 가기, 아직은 미완성의 7개의 단계를 거쳐 발전되었다. 참여자들의 손끝세 참여경험은 만남, 성장통, 손끝으로 느끼는 예배, 제2의 가족, 축각으로 함께 하는 시간, 해외문화를 경험하며 더 성장하게 됨,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섬김의 7개 범주에서 14개 하위범주, 53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 운영에 대해 논의 하였다.

주제어: 농기반 농맹인, 농맹인, 시청각장애인, 자조집단, 질적 사례연구